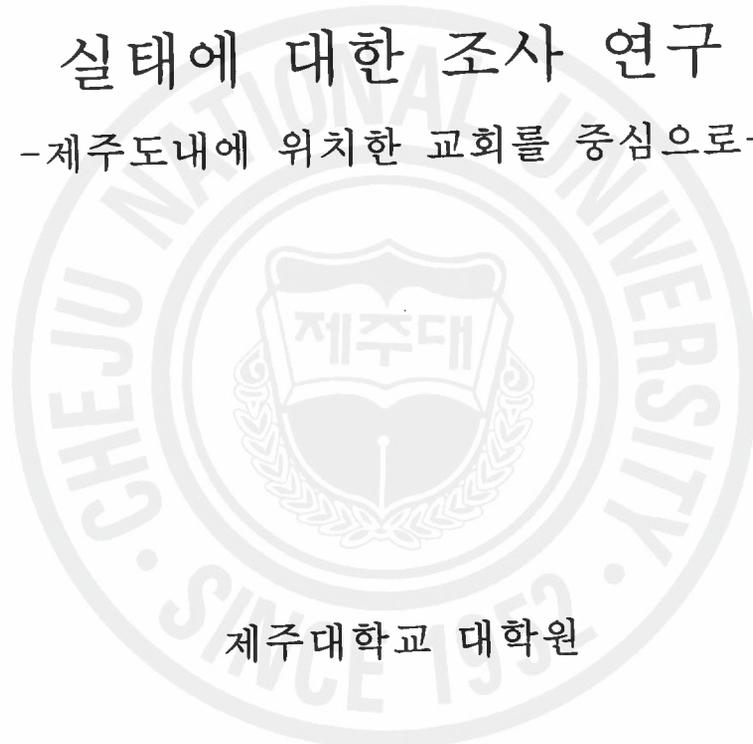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김수정

2008년 2월

한국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정 희

김 수 정

이 論文을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2월

김수정의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 대 식

심 사 위 원 심 최 정

심 사 위 원 김 정 치



濟州大學校大學院

2007년 12월

<abstract>

A study on the state of the conductors and
the choirs of church in Korea
-Specilly considering church in Jeju Island, Korea

Soo-Jeo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eong-Hee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problems and to grope for a way to the development of choir by investigating consciousness of conductors and choirs in Jeju Island. The research was composed of 5 sectors; there were 37 questions for conductors and 31 for choirs. Although statistical methods of data analysis differ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mainly used.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results.

Based on the research, 63% of conductors were unsatisfactory with the collection of sacred music, which resulted from the lack of budget.

The conductors were preparing for less than two hours a week. They also believed that practicing hymns should be done once a week and 2~3 hours of practice per a week sh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positions, 45.7% of choirs were allocated according to individual capability and compass, whereas 54.2% were placed to wherever they wished.

The results showed that seminars or educational programs for conductors as well as choirs were required for the sake of qualitative improvement. The members should maintain the voice in any circumstances by making health

sound. For this, the church should increase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rough diversifying the regular seminars and programs and provide m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grow capable conductors and choirs.

71.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less than 1% of the choir members had been majoring in music and 91.3% agreed that they were in need of professional solo singers. 83.6% answered that these members should be paid.

While 41.3% of conductors were serving without payment, 49.1% answered that more than 400,000 KRW should be paid to them. Hence, it seems that there should be improvement in terms of payment. For the development of church music,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are required. Especially for the development of church ensemble, there should not be a lack of musical professionalism of the conductor and the spiritual and inner truthfulness should be accompanied. Additionally, it can partly be managed by the faith but appropriate payment according to it should not be ignored.

Based on the survey about conductor and choir, I can make following conclus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oirs of church. First of all, members of choir's active participation is required. Secondly, competent conductor is essential. Third, for the constant improvement, Seminars and education programs for choir and conductor himself is required. Last but not least, Church should support choir actively. Choir's praise highly influence the growth of church. Beautiful and merciful praise of choir enrich worship, therefore it would be stepping-stone for the development of church.

I finish this thesis with the wish that it would be helpful for the growth of choir and then, choirs could grow and praise beautifully and mercifully.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용어의 정의	2
II. 이론적 배경	3
1. 교회음악	3
1) 교회음악의 정의	3
2) 교회음악의 분류	3
2. 성가대	4
1) 성가대의 정의	4
2) 성가대 지휘자의 역할	5
3) 성가대원의 역할	5
3. 현대 교회의 성가대	6
1) 한국교회의 성가대의 역사와 실태	6
2) 한국교회 지휘자의 실태	8
3) 음악의 다양화	8
III. 연구 방법	11
1. 연구방법	11
2. 피험자의 현황	11
3. 연구절차	12

IV. 연구 결과	13
1. 설문조사 결과	13
1) 피험자의 일반적인 사항	13
2) 선곡과 성가곡집에 대한 인식	18
3) 성가연습에 대한 사항	20
4) 성가대 지휘자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항	22
5) 성가대원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항	29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39
V. 결론	42
참 고 문 헌	45
부 록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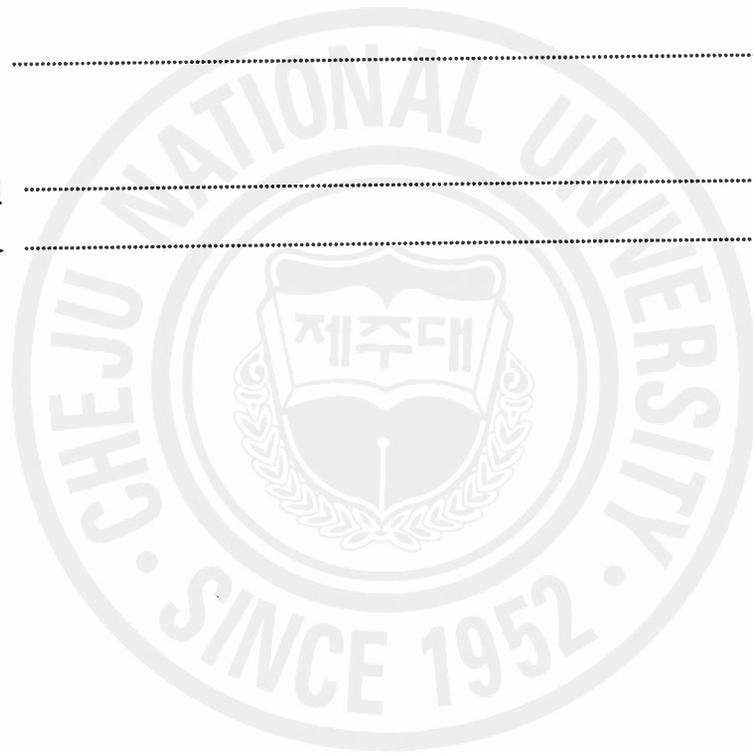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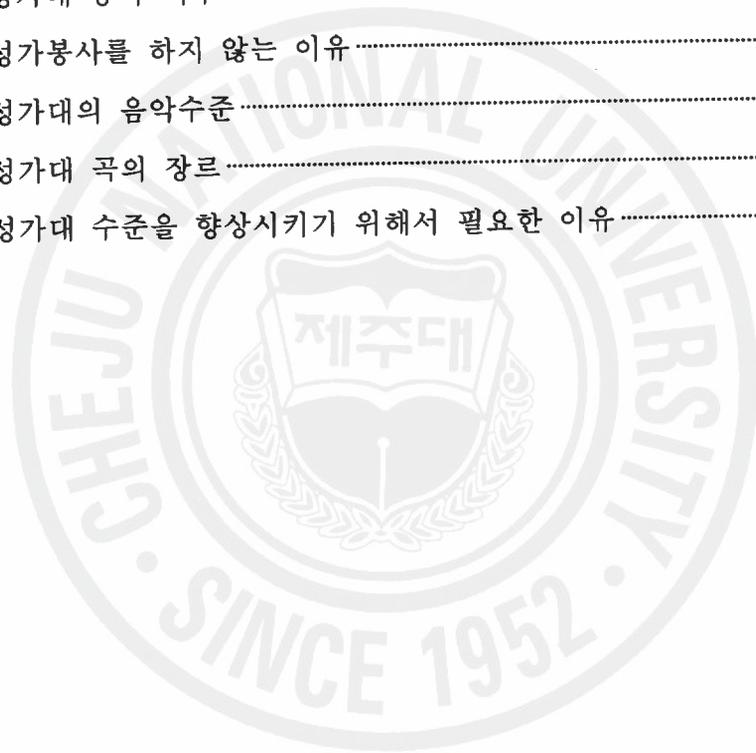


표 목 차

<표3-1> 설문지 회수 현황.....	11
<표4-1> 피험자의 성비.....	13
<표4-2> 피험자의 연령대.....	14
<표4-3> 피험자의 연령대 기술통계량.....	14
<표4-4> 피험자의 연령대 상관계수.....	14
<표4-5> 피험자의 학력 분포.....	15
<표4-6>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학력.....	15
<표4-7> 성가대 경력.....	15
<표4-8>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음악 전공 여부.....	16
<표4-9>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전공여부와 세부전공.....	16
<표4-10>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음악 전공 분야.....	17
<표4-11> 교회가 위치한 지역.....	17
<표4-12> 지휘자의 직분.....	18
<표4-13> 성가곡집에 대한 인식.....	18
<표4-14> 성가곡집에 대한 만족도.....	19
<표4-15> 성가곡집이 만족하지 않은 이유.....	19
<표4-16> 성가선곡을 위한 기준.....	20
<표4-17> 성가대 지휘 주당 시간.....	20
<표4-18> 성가대 주당 연습 횟수.....	21
<표4-19> 성가대 주당 필요 연습 시간.....	21
<표4-20> 성가 연습 전 발성 연습.....	21
<표4-21> 성가대 파트 구성 방법.....	22
<표4-22>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여부.....	22
<표4-23>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22
<표4-24>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 횟수.....	23
<표4-25> 지휘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참석 여부.....	23

<표4-26> 지휘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24
<표4-27> 도내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24
<표4-28> 성가대 구성원 중 전공자 수	24
<표4-29> 전문 독창자 수	25
<표4-30> 지휘자 입장에서 전문 독창자의 필요성	25
<표4-31> 전문 독창자의 보수 지급	25
<표4-32> 성가대원으로서의 적당한 연령	26
<표4-33> 성가대원 연령대	26
<표4-34> 성가대원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	27
<표4-35> 성가대 지휘자의 보수	27
<표4-36> 보수의 만족도	27
<표4-37> 교회 지원의 필요성	28
<표4-38> 현재 교회의 지원 정도	28
<표4-39> 성가대 애로사항	28
<표4-40> 성가대에서 부르는 곡의 수준	29
<표4-41> 곡의 어려운 이유	29
<표4-42>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정도	30
<표4-43> 성가대원이 생각하는 곡의 수준 기술통계량	30
<표4-44> 성가대원이 생각하는 곡의 수준 자유도	30
<표4-45> 성가연습 주당 횟수	31
<표4-46> 성가연습 1회당 연습 시간	31
<표4-47> 성가연습의 충분정도	31
<표4-48> 성가대원이 원하는 연습시간 기술통계량	32
<표4-49> 성가대원이 원하는 연습시간 자유도	32
<표4-50> 성가 전 발성연습	32
<표4-51> 발성연습의 도움정도	32
<표4-52> 파트선택	33
<표4-53> 자신이 파트를 정하는 기준(복수응답가능)	33
<표4-54>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유무	33

<표4-55>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참석 여부.....	34
<표4-56>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의 필요성.....	34
<표4-57> 1년에 필요한 횟수.....	34
<표4-58> 세미나나 교육의 필요성.....	35
<표4-59> 성가지휘자와 반주자의 음악전공 여부.....	35
<표4-60> 보수의 정도.....	35
<표4-61> 성가합창의 발전을 위해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성.....	36
<표4-62>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이유.....	36
<표4-63> 성가대 봉사 여부.....	37
<표4-64> 성가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	37
<표4-65> 성가대의 음악수준.....	37
<표4-66> 성가대 곡의 장르.....	38
<표4-67> 성가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성가대가 조직되었다. 한국 교회의 성가대는 예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며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교회 음악의 시작은 기독교의 의식이나 행사에 따르는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유대교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가리켰으나 차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 음악이란 “기독교의 예배나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각 교회들안에서 성가대는 마치 필수적인 조직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2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음악이 보다 나은 예배음악으로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한 한국 교회는 교회 수만큼 많은 성가대가 조직되었다. 그 영향으로 교회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에도 많은 성장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교회음악의 실상을 살펴보면 양적인 증가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예배에서 성가대의 찬양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성가대의 현실은 규모가 큰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 대부분의 성가대원이 음악 비전공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다 연습시간의 부족, 대원들의 참여도 결여, 지휘자의 전문성 부족 및 신앙적인 열성만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한다면, 예배기관인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 올바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

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더욱 이상적인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주도내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실상을 알아보고, 교회 합창의 질적 향상과 교회 음악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교회음악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며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음악 중 성가대는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제주도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회음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성가대 지휘자 : 교회 내에서 중심적인 예배 음악을 지휘하는 자

나. 성가대원 : 교회 내에서 중심적인 예배에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자

II. 이론적 배경

1. 교회음악

1) 교회음악의 정의

교회음악(教會音樂, Sacred music)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음악¹⁾을 일컫는 말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적²⁾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음악³⁾이어야 한다.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을 비교해 보면 음악 이론적(멜로디, 박자, 화성, 음색, 형식 등)으로 다른 점은 하나도 없지만, 내용상 교회음악은 창작 동기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곡되어졌다면 세속음악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⁴⁾는 것이 다른 점이다.

2) 교회음악의 분류

교회음악에 관한 신학적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장16절)와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5장19절의 성경말씀으로 많은 음악신학자들이 교회음악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가르치며 권면하고’는 교회 성도들 간(피차)의 일들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가르침과 권면에 수반되는 태도와 마음자세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예배의 노래’로 해석되므로 교회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구분되는 음악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⁵⁾

1) 오영걸, 「(성경에서 비쳐 본) 교회음악 개론」, 서울: 작은 우리, 2000, p.15.

2) 이철구, 「성가대원 핸드북」, 생명의 말씀사, 1999, p.13.

3) 이택희, 「교회음악의 이해」, 기독교음악사, 1985, pp.22~23.

4) 오영걸, p.16.

(1) 레이투르기아(leitourgia, worship, 예배) 음악

레이투르기아는 일반적으로 예전의 의식(ritual)과 관계를 맺는 단어이다.

예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정성과 사랑, 경의를 표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때 표현의 매개체와 수단인 음악으로 반드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음악이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교회음악은 회중 찬송가와 성가대의 찬양이다.

(2) 케리그마(kerigma, proclamation, 전도와 선교) 음악

케리그마란 복음, 기쁜 소리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신 구원에 대하여 증거 하는 노래들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음악이고, 교훈적인 노래이기도 하다. 복음가와 부흥가가 이에 속한다.

(3) 코이노니아(koinonia, fellowship, 교제) 음악

코이노니아 음악은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적인 존재양식에 대한 음악적 표현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데 사용하는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통일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교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음악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복음가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등이 있다.

2. 성가대

1) 성가대의 정의

성가대란 일반 회중이 부르지 못할 합창곡들을 특별히 훈련되고 숙달된 자들이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기관⁶⁾으로 성가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검증된 찬양을 올바르게 드려야 한다.

성가대의 찬양은 교회음악 중에서 레이투르기아(leitourgia) 음악에 속하는 것으로 예배 시 회중들을 대표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조직인 것이다.

5) 이석철 역, 「교회음악 신학」, 요단, 1997, pp.128~131.

6) 오영걸, p.281.

2) 성가대 지휘자의 역할

교회합창에 있어서 지휘자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언행과 사생활이 문란해서는 안 되며 대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음악 전체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음악적인 지식과 함께 성가대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휘자의 지도방향에 따라 음악이 나아가게 되며, 지휘자의 수준은 곧 합창단의 수준이 된다.

다음은 지휘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다.

첫째, 지휘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리더십이다.

사람들을 잘 이끌어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연주를 할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지휘자의 기본적인 역할에 속한다.

둘째, 성가대를 지도하는 지휘자는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소리를 잘 듣고 구분해 낼 수 있는 섬세한 음감을 말한다.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것도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휘자는 파트의 균형이나 음정, 리듬, 조화에 대한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적 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음악을 듣고 판단하는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지휘자는 음악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연주시에 결국은 지휘자의 음악이 나오게 되며 어떤 곡이든지 작곡자가 원하는 것을 이해시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음악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휘자의 피아노 연주능력과 시창능력은 독보력과 곡 해석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연습의 양, 연주행사와 선곡은 연초에 미리 계획해 둔다. 아울러 음악사와 음악이론 전반에 걸쳐서도 폭 넓게 알고 있어야 대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합창 작품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철저한 문헌 공부도 필요하다.⁷⁾

3) 성가대원의 역할

예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가대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성가대원은 교인들 중에서 선발된 자들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위원의

7) 최훈차, 「합창지휘법」, 호산나음악사, 1997, p.16.

중책을 지닌다.

둘째, 성가대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한다.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로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토록 한다.

셋째, 성가대는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예물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

넷째, 성가대는 하나님과 회중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교량역할을 한다.

다섯째, 성가대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음악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성가대는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

일곱째, 성가대는 회중에게 찬송가를 바르게 부르도록 하며, 새로운 찬송가를 보급한다.

여덟째, 성가대는 송영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높으신 자의 처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3. 현대 교회의 성가대

1) 한국교회의 성가대의 역사와 실태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예배당은 미국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이미 서상륜에 의해 황해도 연천읍 송천에 설립되었다.⁸⁾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찬송이 불러 지게 되었으며 최초의 찬송은 1888년 12월 25일 벨엘교회(정동교회 전신)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 우리말 가사로 불려진 것이다.⁹⁾

이때의 찬양은 서양음악을 받아들이는 당시 교회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컸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선교사와 더불어 찬송가와 음악교육을 병행하였기 때문이다.

1900년 초,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무렵에 최초로 성가대가 생기게 되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1913년 당회에서 당시 송실전문학교 생물 교수

8)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기독교문사, 1994, p.174.

9) 윤성원, "찬양대 지도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15.

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마우리(Eli M. Mowry)를 초빙하여 성가대를 설립케 하였다. 그는 장대현 교회 성가대가 1913년이나 14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¹⁰⁾ 그러므로 한국 최초로 성가대가 생긴 것은 1913년 또는 1914년이다.

이 사대의 찬송은 교회나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만 국한되는 노래가 아니라 을사 조약과 한일합방과 망국의 치욕과 설움에 대한 울분의 표현이었다.¹¹⁾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신자의 수도 증가 시켰으며, 찬송가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3종의 찬송가가 증편 되기까지 이르렀다. 1940년경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성가대 활동 역시 많은 위축을 받았다. 그러나 해방되면서 교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성가대 조직에 대한 열성도 되살아났다.

그 후, 다시 1950년 6.25사변으로 교회 활동에 어려움을 주었으나, 휴전 후 음악계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가대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1954년 기독교 방송국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개신교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특히 한국 교회음악과 성가대의 발전에 크나큰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런 한국 개신교의 전파와 발전으로 지금은 교회마다 성가대가 조직되었으며 큰 규모의 교회는 몇 개의 독자적인 성가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가대의 필요성과 구성이 보편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가대는 한국 교회에 여러 유형의 성가대가 조직·운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성가대는 선교 1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음악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재의 한국개신교는 아주 소규모의 교회 일지라도 성가대를 갖추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다. 각 교회는 주일예배의 회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가대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저녁예배나 수요 예배를 위한 성가대를 갖는 경우도 있다. 파트 구성에서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4부 합창의 구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큰 규모의 교회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성가 곡을 부르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성가대의 음악지도자를 '음악목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교회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어 교회내에서 성가대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문헌 사료집 제1권」, 새문안교회1987, p.339.

11) 이유선, p.177.

2) 한국교회 지휘자의 실태

현재 한국교회내의 지휘자들의 실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지휘자의 임무는 부업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 음악의 근본적인 발전을 꾀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교회 성가대의 선곡을 보면 손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쉽게 효과적인 음악만 택하고 있고 또한 지휘자 스스로가 자료가 부족하다.

둘째, 한국교회 지휘자를 양성하는 곳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성가대 지휘만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음악 대학에 종교음악과나, 신학 대학의 교회음악과가 있으나 이러한 종교음악과도 지휘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전공이 있다. 다른 전공이라는 것은 성악이나 오르간이다.

셋째, 성가 지휘를 전임으로 희망하는 학생이 적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전공이 있기 때문이다. 지휘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흥미를 잃은 학생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음악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으나 교회의 엄격성 때문에 교회 지휘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지휘자로는 부적격 하지만 능력있는 음악가를 교회는 노력하여 교회음악가로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과거 독일과 같이 음악가를 교회에서 많이 키워 지휘자, 작곡자, 연주를 배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음악에 활력이 생기고 창작음악의 부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로 볼 때 이러한 일에 교회는 소홀하였다.¹²⁾

3) 음악의 다양화

근자에 예배음악도 각기 문화에 따라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공감을 얻어가고 있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외국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의 경우도 아프리카 문화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 토착적인 음악을 예배에 활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간혹

12) 홍정수, 「교회음악개론」,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P.95.

전통적으로 사냥 때 부르던 곡에 복음의 가사를 붙여 찬송하는 일 등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한국교회의 일부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선교역사가 1세기를 훌쩍 넘은 현재의 시점에도 찬송가의 대다수가 외국 곡조에, 외국가사로 된 것을 번역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세계교회와 동일한 곡조와 내용의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 그것들의 수용에 대해 결코 배타적 입장에 서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는 곡조들이 우리 찬송가에 너무 희소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악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르간만이 장엄하고 성스럽다는 인식은 잘못 이해된 것이다. 실상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오르간은 금지되었었으며 9세기가 되어서야 서방에 소개, 사용되어졌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일부는 오르간을 사치스런 중세 예배의 상징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기를 부수기까지 했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를 느낀다. 특정 악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견해는 상대적이며,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편견일 수 있다.¹³⁾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가사를 담느냐에 의해 예배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중에도 외국 곡으로서 대중들이 부르는 노래에 찬송가 가사를 붙인 곡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와 하늘가는 밝은 길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아주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Auld lang syne에서 온 것이고 하늘가는 밝은 길이는 Annie Laurie라는 가요에서 온 것이다. 그 외에도 찬송가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스웨덴 민요에서 온 것이다.¹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락이나 악기를 사용한 음악에 찬송가 가사를 덧붙여 사용한다면 서구화된 오늘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내면속에 잠재된 친근한 정서로 인해 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종종 우리는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곡 등으로 연주하여야만 질 높고 가치 있는 음악이 드러지는 양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데 적절치 못한 태도이다. 오늘날 서양음악은 이미 우

13) 김순환, "오르간", 『예배학사전』,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pp.824-826

14)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한울출판사, 1997, p.351.

리의 음악의 일부로 익숙한 것이 되어 있고 배타적인 태도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잘 반영하고,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회음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음악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과 격리되지 않는 채 삶의 중심에 있음을 피부로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¹⁵⁾



15) 김순환, “한국교회를 위한 예배 신학적 재고와 방향”, 「2000년도 교내학술공모 연구논문」, 한국성서대학교, 2001, pp.311-313.

I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내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교회음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의해 조사 분석하였다.

2. 피험자의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성가대 지휘자 및 성가대원은 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 내 성가대 지휘자 50명과 대원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성가대 지휘자인 경우 49부(98%)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합하게 응답한 피험자 3(6%)부를 제외한 46부(92%)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가대원인 경우 300부 100%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하게 응답한 피험자 7부(2%)를 제외한 293부(98%)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피험자로 확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3-1>와 같다.

<표3-1> 설문지 회수 현황

구 분	성가대 지휘자집단		성가대원 집단	
	설문지수	비율	설문지수	비율
배 부	50	100%	300	100%
회 수	49	98%	300	100%
제 외	3	6%	7	2%
표 본	46	92%	293	98%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실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2007년 9월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내용과 음악학 전공교수 및 교회실무에 종사하는 목사 및 성가대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2007년 10월 중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배포방법은 직접전달 및 우편발송으로 하였으며, 회수는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통계적 분석방법은 검증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주로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에 이용된 통계패키지로는 SPSS 12.0 이다.



IV. 연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피험자의 일반적인 사항

설문지는 지휘자용과 성가대원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대, 학력, 전공여부 및 세부전공, 경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표4-1> 피험자의 성비

구분	성 별		계
	남(비율)	여(비율)	
지휘자	30(65.2)	16(34.8)	46(100.0)
성가대원	95(32.4)	198(67.6)	293(100.0)

설문지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지휘자인 경우에는 응답자 46명 가운데 65.2%가 남자로 여자 34.8%보다 30.4%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성가대원인 경우에는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293명 가운데 198명으로 67.6%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실제로 성가대원을 구성하는 비율을 볼 때 여성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대

<표4-2> 피험자의 연령대

구분	연령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지휘자	0(0.0)	15(32.6)	23(50.0)	8(17.4)	46(100.0)
성가대원	25(8.5)	50(17.1)	90(30.7)	128(43.7)	293(100.0)

다음으로 설문지의 응답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4-2>과 같다. 지휘자인 경우에는 30대가 32.6%이고 40대는 50%로 대부분 3-40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성가대원인 경우에는 총 293명중 128명으로 43.7%가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40대는 90명(30.7%), 30대는 50명(17.1%)이며 20대가 25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가봉사를 하는 대원들의 연령대가 고령임을 알 수 있다.

<표4-3> 피험자의 연령대 기술통계량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실제연령대	46	2.9130	0.62632
적정연령대	46	2.0000	0.69921

<표4-4> 피험자의 연령대 상관계수

구분		실제연령대	적정연령대
pearson상관계수	실제연령대	1.000	0.152
	적정연령대	0.152	1.000
유의확률(단측)	실제연령대	-	0.156
	적정연령대	0.156	-

<표4-3>과 <표4-4>에서 현재 지휘자가 속한 성가대원들의 실제연령대와 지휘자들이 성가대원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의 관계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153이며 유의확률값이 0.156임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학력

<표4-5> 피험자의 학력 분포

구분	학력별					계
	중졸	고졸	대졸	대졸 이상	무응답	
지휘자	1(2.2)	8(17.4)	6(13.0)	30(65.2)	1(2.2)	46(100.0)
성가대원	26(8.9)	90(30.7)	65(22.2)	107(36.5)	5(1.7)	293(100.0)

설문지 응답자중 지휘자들은 65.2%가 대졸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성가대원인 경우 고졸 30.7%, 대졸이상이 36.5% 대졸인 경우가 22.2%로 나타났다.

<표4-6>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학력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지휘자	46	3.3696	0.99685	0.14698
성가대원	293	2.8294	1.07504	0.06280

<표4-6>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학력에 대한 t값이 3.199이고 양측검정의 유의확률이 0.002로 학력에 대해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가대 경력

<표4-7> 성가대 경력

구분	경력별					계
	0~2년	3~4년	4~5년	5년 이상	무응답	
지휘자	3(6.5)	10(21.7)	5(10.9)	26(56.5)	2(4.3)	46(100.0)
성가대원	42(14.3)	45(15.4)	34(11.6)	172(58.7)	-	293(100.0)

설문응답자들의 성가대 경력을 분석한 결과, 지휘자인 경우 5년 이상이 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년 21.7%, 4~5년 10.9%로 나타났다. 성가대원의 경력 또한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이 58.7%로 가장 많았고, 3~4년 15.4%, 4~5년 11.6% 순으로 나타났다. 지휘자 및 성가대원에 대한 봉사는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음악의 전공여부

<표4-8>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음악 전공 여부

구분	전공 여부		계
	예	아니오	
지휘자	29(63.0)	17(37.0)	46(100.0)
성가대원	50(17.1)	243(82.9)	293(100.0)

설문응답자중 지휘자 및 성가대원들에게 음악을 전공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휘자인 경우는 63.0%가 음악을 전공하였다고 답하였고, 성가대원인 경우에는 82.9%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전공여부와 세부전공

구분	비전공	전공				전체	
		작곡	성악	기악	지휘		
지휘자	실제빈도	17	3	18	6	2	46
	기대빈도	35.3	0.8	6.9	2.6	0.4	
성가대원	실제빈도	243	3	33	13	1	293
	기대빈도	224.7	5.2	44.1	16.4	2.6	
전체	실제빈도	260	6	51	19	3	339
	기대빈도	260	6.0	51.0	19.0	3.0	

<표4-9>에서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전공여부와 세부전공과의 관계를 보면, 피어슨(pearson) 카이제곱값은 50.749이고 자유도가 4일때 접근 유의확률 값은 0.000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별도로 두 집단 간에 전공여부를 살펴본 바 p값이 0.000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지휘자와 성가대원간에는 전공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전공분야

<표4-10>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음악 전공 분야

구분	전공분야				계
	작곡	성악	기악	지휘	
지휘자	3(10.3)	18(62.1)	6(20.7)	2(6.9)	29(100.0)
성가대원	3(6.0)	33(66.0)	13(26.0)	1(2.0)	50(100.0)

전공여부를 묻는 문항 다음으로 음악전공을 하였다면 세부전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휘자인 경우는 성악이 62.1%, 다음으로 기악 20.7%, 작곡 10.3%로 성악을 전공한 지휘자의 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가대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악 66.7%로 가장 많았고, 기악 26.0%, 작곡 6.0% 순으로 나타났다.

(7) 교회가 위치한 지역

<표4-11> 교회가 위치한 지역

구분	지휘하고 있는 교회소재의 위치에 따른 분류		계
	제주시	서귀포시	
지휘자	24(52.2)	22(47.8)	46(100.0)

지휘자인 경우,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지휘하고 있는 교회소재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비슷한 분포를 이루도록 조사한 결과 제주시 52.2% 서귀포시 47.8%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2구분 하였다.

(8) 직분

<표4-12> 지휘자의 직분

구분	직 분					계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기타	
지휘자	5(10.9)	26(56.5)	13(28.3)	1(2.2)	1(2.2)	47(100.0)

설문응답자 중 지휘자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을 조사해 본 결과, 서리집사 56.5%, 안수집사(권사) 28.3%, 평신도 10.9%로 나타났으며, 기타 1명인 경우에는 음악전도사라 표기하였다.

2) 선곡과 성가곡집에 대한 인식

<표4-13> 성가곡집에 대한 인식

구분	반응구분(%)					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성가곡집에 대한 인식	0(0.0)	26(56.5)	14(30.4)	5(10.9)	1(2.2)	46(100)

기존에 판매되는 성가곡집에 대하여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4-9>와 같다.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수는 0%이며, 충분하다 56.5%, 보통이다 30.4%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되는 성가곡집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4-14> 성가곡집에 대한 만족도

구분	반응구분(%)				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약간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성가곡집에 대한 만족도	0(0.0)	17(37.0)	25(54.3)	4(8.7)	46(100)

그렇다면, 현재 지휘자가 성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가곡집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4-10>와 같다. 분석결과로는 약간 부족하다 54.3%, 매우 부족하다 8.7%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휘자는 총 63%로 집계되었다. 반면 매우 만족한다는 0%이며, 만족한다는 37%로 나타났다.

<표4-15> 성가곡집이 만족하지 않은 이유

구분	반응
악보가 구하기 어려워서	3(10.3)
교회예산 부족으로 교회지원이 모자라서	12(41.4)
성가곡집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6(20.7)
기타	8(27.6)

<표4-1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기존에 판매되는 성가곡집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가곡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 성가곡집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지휘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로는 교회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교회지원이 모자라 원하는 성가곡집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41.4%였고, 기타 및 성가곡집에 대한 정보 부족, 악보구하기 어려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4-16> 성가선곡을 위한 기준

구분	반응구분(%)		계
	음악적인 면	신앙적인 면	
선곡 시 중점 사항	23(50.0)	23(50.0)	46(100)

성가선곡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 음악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으로 나누어 답하도록 한 결과 각각 50%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는 성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음악과 신앙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지휘자들도 음악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 둘 다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성가연습에 대한 사항

<표4-17> 성가대 지휘 주당 시간

구분	반응구분(%)				계
	1시간 이내	1~2시간	2~3시간	3~4시간 이상	
성가대 지휘 준비 시간	15(32.6)	19(41.3)	10(21.7)	2(4.3)	46(100)

지휘자들에게 성가대를 지휘하기 위해 주당 몇 시간 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해 먼저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준비시간이 1~2시간 이내이라는 응답이 41.3%, 1시간 이내는 32.6%, 2~3시간이 21.7%, 3~4시간 이상이 4.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지휘자인 경우 대부분 주당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성가대의 지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4-18> 성가대 주당 연습 횟수

구분	반응구분(%)				계
	1번	2번	3번	4번	
성가대 주당 연습횟수	28(60.9)	16(34.8)	2(4.3)	0(0.0)	46(100.0)

다음으로 성가대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가연습은 주당 몇 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60.9%가 주 1회, 34.8%는 주 2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3회 연습하는 경우는 4.3%로 아주 소수였으며 주 4회 연습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표4-19> 성가대 주당 필요 연습 시간

구분	반응구분(%)				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주당연습시간	6(13.0)	15(32.6)	21(45.7)	4(8.7)	46(100.0)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휘자의 입장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주당 연습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3시간 45.7%, 2시간 32.6%, 1시간 13.0%, 4시간 이상이 8.7%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당 필요한 연습시간은 2-3시간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20> 성가 연습 전 발성 연습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성가연습 전 발성연습	22(47.8)	24(52.2)	46(100.0)

성가연습 전에 발성연습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 발성연습을 하고 있다가 47.8%, 발성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52.2%로 나타났다.

<표4-21> 성가대 파트 구성 방법

파트구성	계
지휘자가 성가대원의 능력이나 음역에 맞게 part를 구성한다.	21(45.7)
대원들이 원하는 part로 배정한다.	25(54.3)
계	46(100.0)

성가대의 파트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로 4구분 하는 경우가 기본이다. 이때 파트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4-17>와 같다. 지휘자가 성가대원의 능력이나 음역에 맞게 배정하는 경우 45.7%, 대원들이 원하는 파트로 구성되는 경우가 54.3%로 나타났다.

4) 성가대 지휘자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항

<표4-22>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여부

구분	반응구분(%)		계
	있다	없다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 참여	32(70)	14(30)	46(100.0)

성가대 및 지휘자 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4-18>와 같다.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70%, 없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났다.

<표4-23>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46(100.0)	0(0.0)	46(100.0)

성가대 및 지휘자 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00% 필요하다는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이고 유익한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4-24>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 횟수

구분	반응구분(%)				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교육프로그램 연간 연수 횟수	7(15.2)	22(47.8)	8(17.4)	9(19.6)	46(100.0)

앞에서 성가대 및 지휘자 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100%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대해 1년에 몇 회 행해져야 하는 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응답결과는 연2회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연 4회 이상이 19.6%, 연3회 17.4%, 연1회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25> 지휘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참석 여부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지휘자 자신을 위한 교육에 참석여부	29(91.0)	3(9.0)	32(100.0)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휘자 32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로는 참석하였다는 응답이 91.0%, 참석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났다. 이는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32명중 91%가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26> 지휘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반응
정보의 부족으로	16%
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52%
시간이 없어서	32%
기타	0%

<표4-26>는 주위의 지휘자들이나 지휘자 본인이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52%, 시간이 없어서 32%,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에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가 16%로 나타났다.

<표4-27> 도내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도내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44(95.7)	2(4.3)	46(100.0)

도내 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95.7%를 차지하고 있다.

<표4-28> 성가대 구성원 중 전공자 수

구분	반응구분(%)				계
	0~1%	1~5%	5~10%	10% 이상	
전공자 수	33(71.7)	12(26.1)	1(2.2)	0(0.0)	46(100.0)

<표4-28>는 응답자인 지휘자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가대원들의 음악전공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이다. 성가대원 중 음악을 전공한 자가 없거나 1%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1%이고, 1-5%가 26.1%, 5-10% 이내는 2.2%라고 답하였다.

<표4-29> 전문 독창자 수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전문 독창자 수	16(34.8)	30(65.2)	46(100.0)

<표4-29>는 지휘자가 현재 속해 있는 성가대에 전문독창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문독창자가 있다 34.8%, 전문독창자가 없다는 65.2%로 나타났다.

<표4-30> 지휘자 입장에서 전문 독창자의 필요성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전문독창자의 필요성	42(91.3)	4(8.7)	46(100.0)

그렇다면 지휘자의 입장에서 성가대내에 전문독창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4-31> 전문 독창자의 보수 지급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무응답	
전문 독창자에게 보수지급	38(82.6)	6(13.0)	2(4.3)	46(100.0)

만약 지휘자가 이끄는 성가대내에 전문 독창자를 배정하게 된다면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83.6%이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3.0%, 무응답 4.3%로 나타났다.

<표4-32> 성가대원으로서의 적당한 연령

구분	반응구분(%)					계
	20~30대	30~40대	40~50대	50대 이상	무응답	
성가대원으로서 적당 연령	8(17.4)	33(71.7)	1(2.2)	1(2.2)	3(6.5)	46(100)

지휘자의 입장에서 성가대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 인지
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4-32>와 같다. 그 결과는 대부분 성가대원으로
적당한 연령대는 30~40대(71.7%)로 나타났고, 17.4%가 20~30대가 적당하다, 40
대 이상 및 나이에 상관없다는 응답자(문항이외의 응답결과로 무응답 처리)가
10.9%이다.

<표4-33> 성가대원 연령대

구분	반응구분(%)				계
	20~30대	30~40대	40~50대	50대 이상	
현재 성가대원 구성 연령대	0(0.0)	11(24.0)	29(63.0)	6(13.0)	46(100.0)

현재 지휘자가 속한 성가대원들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표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50대가 6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30~40대 23.9%, 50대 이상이
13.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표4-32>에서 보여주는 지휘자들이 성가대
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와 지휘자가 속한 성가대원들의 실제 연령대와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34> 성가대원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

구분	반응구분(%)				계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상관없다	
성가대원은 경력보다는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	12(26.1)	9(19.6)	10(21.7)	15(32.6)	46(100)

지휘자의 입장에서 성가대원은 경력보다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다는 포함한 긍정적 응답은 45.7 %이고, 아니다 21.7%, 상관없다는 응답이 32.6%로 나타났다.

<표4-35> 성가대 지휘자의 보수

구분	반응구분(%)						계
	무료봉사	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무응답	
보수	19(41.3)	7(15.2)	4(8.7)	5(10.9)	10(21.7)	1(2.2)	46(100.0)

성가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결과는 <표4-35>와 같다. 41.3%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40만원의 이상이 21.7%, 20만원 미만이 15.2%, 30~40만원 미만이 10.9%, 20~30만원 미만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표4-36> 보수의 만족도

구분	반응구분(%)			계
	만족한다	만족스럽지 않다	무응답	
보수에 만족도	13(28.3)	22(47.8)	11(23.9)	46(100.0)

다음으로 지금 현재 무료봉사이거나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7.8%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28.3%는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중 23.9%의 수가 무응답으로 신앙적인 봉사에 대한 보수의 만족도를 답하기를 꺼려하였다.

<표4-37> 교회 지원의 필요성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교회 지원이 필요성	46(100.0)	0(0.0)	46(100.0)

성가대의 지휘자 입장에서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해석된다.

<표4-38> 현재 교회의 지원 정도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무응답	
현재는 교회의 지원정도	6(13.0)	37(80.4)	3(6.5)	46(100.0)

현재 성가대를 위한 교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4-40>와 같다. 현재 교회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이고,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80.4%로 나타났다.

<표4-39> 성가대 애로사항

구분	반응
대원들의 협조 부족	8(17.4)
교회 관리자의 협조 부족	17(37.0)
교회 관리자의 지나친 참견	3(6.5)
성도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 부족	9(19.6)
기타	9(19.6)

마지막으로 현재 성가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교회 관리자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답한 것이 37%로 가장 많았고, 성도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기타가 19.6%, 성가대원들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17.8%이고, 교회관리자들이 참견이 지나치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5) 성가대원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항

<표4-40> 성가대에서 부르는 곡의 수준

구분	반응구분(%)				계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적당하다	너무 쉽다	
성가대에서 부르는 곡의 수준	2(0.7)	82(28.0)	202(68.9)	7(2.4)	293(100.0)

성가대원을 대상으로 성가대에서 부르는 곡의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로는 68.9%가 적당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어려운 편이다 28%, 너무 쉽다 2.4%, 매우 어렵다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4-41> 곡의 어려운 이유

구분	반응
음악적 지식의 부족으로	228(77.9)
음역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34(11.7)
선곡이 잘못되어서	23(7.8)
기타	8(2.6)

위의 문항에서 현재 성가대에서 부르는 곡이 어렵다고 느끼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77.9%가 성가대원들 자신들이 음악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낀다고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음역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11.7%, 선곡이 잘못되어서 7.8%, 기타 2.6%로 나타났다.

<표4-42>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정도

구분	반응구분(%)				계
	정확히 읽는다	대충 읽는다	옆사람 따라서 읽는다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정도	81(27.6)	166(56.7)	40(13.7)	6(2.0)	293(100.0)

성가대원 중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4-36>와 같다. 대충 읽는다가 56.7%로 가장 많았고 정확히 읽을 줄 안다 27.6%, 옆사람을 따라서 읽는다 13.7%,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 2.0%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확히 읽을 줄 아는 27.6%를 제외한 나머지는 잘 못일고 있어 악보를 읽는 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4-43> 성가대원이 생각하는 곡의 수준 기술통계량

표본수	평균	편차
293	2.7304	0.50916

<표4-44> 성가대원이 생각하는 곡의 수준 자유도

구분	매우어렵다	어려운편	적당하다	너무쉽다
관측수	2	82	202	7
기대빈도	73.3	73.3	73.3	73.3
잔차	-71.3	8.8	128.8	-66.3

<표4-44>에서 성가대원이 생각하는 곡의 수준 자유도가 3이며 카이제곱 값은 356.570이다. 따라서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관측된 유의확률값은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 성가대에서 부르고 있는 곡의 수준에 대한 인식에는 성가대원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45> 성가연습 주당 횟수

구분	반응구분(%)			계
	1회	2회	3회 이상	
성가연습 주당 횟수	99(33.8)	181(61.8)	13(4.4)	293(100.0)

성가대원의 입장에서 성가연습은 주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2회가 61.8%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주3회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4-46> 성가연습 1회당 연습 시간

구분	반응구분(%)			계
	1시간	1~2시간	2시간 이상	
1회당 연습 시간	96(32.8)	179(61.1)	18(6.1)	293(100.0)

그렇다면 성가연습은 1회당 몇 시간이 적당하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1-2시간이 61.1%, 1시간 정도가 32.8%로 나타났고, 2시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도 6.1%이다.

<표4-47> 성가연습의 충분정도

구분	반응구분(%)				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다소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성가연습의 충분정도	53(18.1)	90(30.7)	148(50.5)	2(0.7)	293(100.0)

그렇다면 현재 성가대원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가연습시간은 충분한 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50.5%정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 30.7%, 매우 충분하다 18.1%, 매우 부족하다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4-48> 성가대원이 원하는 연습시간 기술통계량

표본수	평균	편차
293	1.7201	0.58242

<표4-49> 성가대원이 원하는 연습시간 자유도

구분	무응답	1시간	1-2시간	2시간이상
관측수	2	96	177	18
기대빈도	73.3	73.3	73.3	73.3
잔차	-71.3	22.8	103.8	-55.3

<표4-48>과 <표4-49>에서 성가대원이 원하는 연습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3이며 카이제곱 값은 264.993이다. 따라서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관측된 유의확률값은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가대원들 간에도 원하는 연습시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50> 성가 전 발성연습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발성연습	101(34.5)	192(65.5)	293(100.0)

성가대원들을 대상으로 성가 전 발성연습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 34.5%, 발성연습을 하지 않는다 65.5%로 나타났다.

<표4-51> 발성연습의 도움정도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발성연습의 도움정도	242(82.6)	51(17.4)	293(100.0)

성가 전 발성연습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표4-5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다수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4-52> 파트선택

구분	반응
지휘자가 성가대원의 능력이나 음역에 맞게 part를 정해준다.	84(28.7)
대원 자신이 원하는 part를 정한다.	209(71.3)

성가대원들이 현재 속한 성가대에서 파트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대원 자신이 원하는 파트를 정한다 71.3%, 지휘자가 성가대원의 능력이나 음역에 맞게 파트를 정해준다 28.7%로 대부분 대원 자신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3> 자신이 파트를 정하는 기준(복수응답가능)

구분	반응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203(69.4)
멜로디가 쉬운 파트로	24.9%
악보를 읽을 줄 몰라서	3.6%
악보를 잘 읽어서	2.1%

그렇다면 성가대원 자신이 파트를 정할 때의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자신의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결정한다 69.4%, 멜로가 쉬운 파트로 결정한다 24.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악보를 읽을 줄 모르거나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파트에 있다고 응답한 부분이 각각 3.6%와 5.7%이다.

<표4-54>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유무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무응답	
교육 프로그램 유무	141(48.1)	148(50.5)	4(1.4)	293(100.0)

현재 성가대 및 자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는 있다 48.1%, 없다 50.5%로 나타났다.

<표4-55>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참석 여부

구분	반응구분(%)				계
	0번	1번	2번	3번 이상	
참석 여부	102(72.3)	39(27.7)	0(0.0)	0(0.0)	141(100)

앞의 문항에서 성가대 및 자신의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피험자는 총 피험자 293명중 141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몇 번 참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본 결과 39명인 27.7%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56>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의 필요성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은 필요성	272(92.8)	21(7.2)	293(100.0)

그렇다면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및 자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않은 것인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의 필요한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4-57> 1년에 필요한 횟수

구분	반응구분(%)				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필요횟수	48(17.8)	137(50.9)	43(16.0)	41(15.3)	293(100.0)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1년에 몇 회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아본 결과, 연 2회가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50.9%, 연 1회 17.8%, 연 3회 16%, 연 4회 이상 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4-58> 세미나나 교육의 필요성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전체
지휘자	실제빈도	46	0	0	46
	기대빈도	25.4	20.1	0.5	
성가대원	실제빈도	141	148	4	293
	기대빈도	161.6	127.9	3.5	
전체	실제빈도	187	148	148	339
	기대빈도	187.0	148.0	148.0	

<표4-58> 세미나나 교육의 필요성에서 피어슨(pearson) 카이제곱값은 43.261이고 자유도가 2일때 접근 유의확률 값은 0.000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휘자와 성가대원간에는 성가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59> 성가지휘자와 반주자의 음악전공 여부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성가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전공 여부	244(83.3)	49(16.7)	293(100.0)

성가대원의 입장에서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성가지휘자 및 반주자는 음악전공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는, 83.3%가 음악전공자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0> 보수의 정도

구분	반응구분(%)					계
	무보수	2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40만원 이상	무응답	
보수의 정도	40(13.7)	28(9.6)	56(19.1)	144(49.1)	25(8.5)	293(100.0)

위의 문항에서 이어 성가지휘자 및 반주자가 음악전공자일 경우 보수는 어느 정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는 40만원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9.1%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 40만원 이하가 19.1%, 무료봉사 13.7%, 20만원 이하 9.6% 순으로 나타났다.

<표4-61> 성가합창의 발전을 위해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성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무응답	
성가 발전의 필요성	276(94.2)	13(4.4)	4(1.4)	293(100.0)

성가대원의 입장에서 성가합창의 발전을 위해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2>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이유

구분	계
음악이 좋아서(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46(15.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227(77.5)
성가대원끼리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14(4.8)
기타	6(2.0)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77.5%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신앙적인 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가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악이 좋아서 15.7%, 성가대원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4.8%,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4-63> 성가대 봉사 여부

구분	반응구분(%)		계
	예	아니오	
성가대 봉사 여부	272(92.8)	21(7.2)	293(100.0)

다음 <표4-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8%가 앞으로도 성가대원으로 계속 봉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4> 성가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

구분	반응
음악적인 소질이 부족해서	66(22.4)
시간이 없어서	142(48.8)
대원간의 친교가 부족해서	37(12.8)
지휘자가 못마땅해서	2(0.8)
기타	46(15.2)

위의 문항에서 앞으로는 성가대원으로 계속 봉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거나 주위에서 성가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악적인 소질이 부족해서 22.4%, 기타 15.2%, 대원간의 친교가 부족해서 12.8%, 지휘자가 못마땅해서 0.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가봉사를 위해 시간과 음악적인 소질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65> 성가대의 음악수준

구분	반응구분(%)					계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조금 낮다	아주 낮다	
성가대의 음악수준	5(1.7)	57(19.5)	185(63.1)	35(11.9)	11(3.8)	293(100.0)

성가대의 음악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 결과, 보통이다 63.1% 높다 19.5%, 조금 낮다 11.9%, 아주 낮다 3.8%, 매우 높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4-66> 성가대 곡의 장르

구분	반응구분(%)				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편이다	별로 그렇지 못하다	아주 그렇지 못하다	
장르의 다양도	32(10.9)	185(63.1)	73(24.9)	3(1.0)	293(100.0)

성가대 곡의 장르는 다양한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편이다 63.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별로 그렇지 못하다 24.9%, 매우 다양하다 10.9%, 아주 그렇지 못하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4-67> 성가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

구분	반응
교육 및 연습시간 연장	199(67.9)
연습실 부족 문제	22(7.5)
리더의 교체	18(6.1)
기타	54(18.5)

성가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육 및 연습시간의 연장 (67.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교회 내 또는 외부기관에서 성가대 및 성가대의 구성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충분한 성가연습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내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교회음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교회음악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가. 연구범위는 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내 성가대 지휘자인 경우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슷한 분포를 이루도록 조사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성가대 지휘자 50명과 성가대원 300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중 성가대 지휘자 49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실험설문 중 부적합하게 응답한 피험자 3부를 제외한 46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피험자로 정했다. 성가대원의 경우 300부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이중 부적합하게 응답한 피험자 7부를 제외한 293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피험자로 확정하였다.

나. 조사연구는 6개 영역별로 지휘자용 설문지 37문항, 성가대원용 설문지 31문항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다.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통계적 분석방법은 검증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주로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라.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성별에 따른 비율은 지휘자인 경우 65.2%가 남자로서 여자 34.8%보다 30.4%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성가대원의 경우 여성이 67.6%로 여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휘자가 속한 성가대원들의 실제 연령대와 지휘자들이 성가대원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대의 관계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153이며 유의확률값이 0.156임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지휘자 65.2%가 대졸이며 성가대원의 경우 고졸이상이 89.4%로 나타나 학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학력에 대한 t값이 3.199이고 양측검정의 유의확률이 0.002로 학력에 대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가대 경력에 있어서는 지휘자인 경우 5년 이상이 56.5%로 가장 많았고 성가대원의 경우 5년 이상이 58.7%로 가장 많아 지휘자 및 성가대원의 봉사는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여부는 지휘자인 경우 성악이 62.5%이며 성가대원인 경우에도 성악이 66.7%로 가장 많았다.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전공여부와 세부전공과의 관계를 보면, 피어슨(pearson) 카이제곱값은 50.749이고 자유도가 4일때 접근 유의확률 값은 0.000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별도로 두 집단간에 전공여부를 살펴본 바 p값이 0.000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지휘자와 성가대원 간에는 전공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 성가곡집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부족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휘자는 총 63%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이유로는 교회 예산부족으로 나타났다.

바. 성가대원을 대상으로 성가대에서 부르는 곡의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68.9%가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가대원이 생각하는 곡의 수준 자유도가 3이며 카이제곱 값은 356.570이다. 따라서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관측된 유의확률값은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 성가대에서 부르고 있는 곡의 수준에 대한 인식에는 성가대원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휘자가 성가대를 지휘하기 위해 준비시간은 주당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성가연습은 주당 1회, 필요한 주당 연습 시간은 2-3시간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가대원이 원하는 연습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3이며 카이제곱 값은 264.993이다. 따라서 유의수준 5%에서 볼 때 관측된 유의확률값은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가대원들 간에도 원하는 연습시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 파트구성은 지휘자가 성가대원의 능력이나 음역에 맞게 배정하는 경우가 45.7%, 대원들이 원하는 파트로 구성되는 경우가 54.3%로 나타났다.

아.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성가대 및 지휘자 본인의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결과 나타났다. 피어슨(pearson) 카이제곱값은 43.261이고 자유도가 2일 때 점근 유의확률 값은 0.000이다. 즉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휘자와 성가대원간에는 성가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성가대구성원 중 음악 전공자가 1%이내라는 문항에 71.1%가 응답하였으며 전문 독창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3.6%였다.

차.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동안의 보수에 관해서는 41.3%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으나 성가대원들에게 지휘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한 설문결과 40만원이상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9.1%로 가장 많아 보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카. 성가대를 이끌어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교회관계자의 협조 부족이 가장 많았고 성도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의 부족, 성가대원의 협조부족, 교회관계자들의 참견이 지나치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성가대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V. 결 론

이 연구는 제주도 교회 성가대에 대한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회음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실제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가대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성가대원들은 연령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하여 신앙심도 깊을 뿐 아니라, 성가대 활동에 관심이 많아 성가대 봉사를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 성가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성연습이나 연습시간의 부족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부족 등에 의해 찬양 후 만족도도 낮아질 것이다. 매주 약 2시간 정도의 연습시간으로 연주를 해야 하는 성가대는 연습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이 높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가대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가대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역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영성교육을 철저히 하여 성가대원 스스로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연습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능력을 갖춘 성가대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 대원의 경우 음악 전공자가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교회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교회음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 교회의 성가대는 중세의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처럼 성가대원의 교육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성가대 지도자가 모든 책임을 맡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찬양을 하는 성가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지휘자의 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음악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지휘자를 통하여 음악 교육과 영성교육을 실시하고 성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성가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더욱 좋은 방법은 음악과 신학을 두루 전공한 음악 목회자를 기용하여 성가대의 모든 관리를 일임하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성가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은 성가대 관련자 모두가 힘써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성가대 및 지휘자 본인의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설문결과 지휘자뿐 아니라 성가대원 중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주 적었다. 특히나, 지휘자중 지휘를 전공하였거나 성가대원 중 성악을 전공한 비율을 따져보면 더 적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 스스로도 음악적 지식이 부족하여 악보를 읽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도 많았다. 즉, 성가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실력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 지휘자나 성가대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회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일반 성도들도 참여하여 질 높은 성가대원을 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가대의 지휘를 담당하거나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하고 있어 사명감에만 이 일을 맡기고 있어 충분한 연습 시간 확보가 힘들었다. 적절한 보수지급으로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회의 시설지원 부족과 재정지원 부족 및 허술한 관리체계와 영성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의 목적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사명감이 부족해지고, 이는 연습 참석률을 떨어뜨려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원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는 성가대의 찬양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연습을 위한 시간과 장소의 제공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지원에서부터 인원보충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 성가대의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교회와 성가대 지도자, 성가대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가대로 거듭날 것이다. 성가대의 찬양은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성가대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예배가 풍요로워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성가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어서 각 성가대가 발전하며,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신우, 「찬송과 예배의 이론과 실제」, 호산나음악사, 1995.
- 곽상수, 「예배음악과 한국교회」, 마루, 2002.
- 김순환, 「예배학사전」,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0.
- 김철륜, 「교회 음악사」, 호산나 음악사, 1992.
- 라형택, 「성가대 운영법과 기술지도」, 작은우리, 1997.
- 문성모, 「민족음악과 예배」, 한돌출판사, 1997.
-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기독교문사, 1994.
- 이철구, 「성가대원 핸드북」, 생명의 말씀사, 1999.
- 최광덕, 「찬양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피니스, 1997.
- 최훈차, 「합창지휘법」, 호산나음악사, 1997.
- 홍정수, 「교회음악개론」,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문헌 사료집 제1권」, 새문안교회1987.
- 이만용, “목회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가대 지휘자상”, 「기독교 음악저널 통권 46호」, 교회음악사, 1999.
- 전희준, “기독교 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교회음악”, 「교회음악 통권57호」, 1991.
- 고은곤, “21세기 바람직한 교회성장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2.
- 권일택, “교회 성장학에 기초한 21세기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적 방안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 선교대학원, 2002.
- 김병혁, “한국교회 예배의 유형과 새로운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

- 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김순환, “한국교회를 위한 예배 신학적 재고와 방향”, 「2000년도 교내학술공모 연구논문」, 한국성서대학교, 2001.
- 김미현, “개신교회 예배음악에 있어서 성가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안나, “21세기 한국교회 예배음악의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김영욱, “한국교회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위치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윤성원, “찬양대 지도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이주호, “교회 성가대의 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Lovelace, Austin C. & William C. Rice : *Music and Worship in the Church*,
Nashvill, Abingdon Press, 1990.

Leafbld, Bruce H. : *Music in Worship, Forth worth, Texas*, SWBTS, 1986.

부 록

<부록1> 지휘자용 설문지	48
<부록2> 성가대용 설문지	54



<부록1>

설문지 (지휘자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석사학위 청구논문(주제 : 한국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를 중심으로)을 쓰게 되어 바쁘신 가운데 죄송하오나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음악에 대한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생각을 들어보아 교회음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실태 그대로를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7년 10월

제주대학교일반대학원 음악과 전공 김수정

※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난의 __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남 __, 여 __)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__ ② 30대 __ ③ 40대 __ ④ 50대 이상 __
3. 귀하의 최종학력은?__
① 중졸 __ ② 고졸 __ ③ 초대졸(2년제) ④ 대졸이상 __
4. 성가대 지휘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0 ~ 2년 __ ② 3 ~ 4년 __ ③ 4 ~ 5년 __ ④ 5년 이상 __
5.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까?
① 예__ ② 아니오__

6. 5번의 답을 ①번으로 한 경우만 답하시오.

음악 분야 중 무엇을 전공하였습니까?

- ① 작곡 _ ② 성악 _ ③ 기악 _ ④ 지휘 _

7. 지휘하고 계신 교회가 위치한 곳은?

- ① 제주시 _ ② 서귀포 _ ③ 북제주군 _ ④ 남제주군 _

8.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 ① 평신도 _ ② 서리집사 _ ③ 안수집사(권사) _ ④ 장로 _

※ 다음은 선곡과 성가곡집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해당난의 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9. 기존 판매되고 있는 성가곡집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_ ② 충분하다 _ ③ 보통이다 _
④ 부족하다 _ ⑤ 매우 부족하다 _

10. 현재 사용되는 성가곡집에 대해서는 충분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_ ② 만족한다 _ ③ 약간 부족하다 _
④ 매우 부족하다 _

11.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악보구하기가 어려워서 _
② 교회예산 부족으로 교회지원이 모라라서 _
③ 성가곡집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_ ④ 기타 _

12. 선곡 시 음악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 중 어느 쪽을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 ① 음악적인 면 _ ② 신앙적인 면 _

※ 다음은 성가연습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해당난의 __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3. 성가대 지휘를 위하여 주당 몇 시간 준비하십니까?

- ① 1시간 이내 ___ ② 1시간 ~ 2시간 ___ ③ 2시간 ~ 3시간 ___
④ 3시간 ~ 4시간이상 ___

14. 성가대 연습은 주당 몇 번 하십니까?

- ① 1번 ___ ② 2번 ___ ③ 3번 ___ ④ 4번 ___

15. 효율적인 성가합창을 위해 주당 몇 시간 연습을 필요로 하십니까?

- ① 1시간 ___ ② 2시간 ___ ③ 3시간 ___ ④ 4시간 이상 ___

16. 성가 연습 전 발성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___ ② 아니오 ___

17. 성가연습전 발성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___ ② 아니오 ___

18. 성가대원의 Part 구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지휘자가 성가대원의 능력이나 음역에 맞게 Part를 구성한다. ___
② 대원들이 원하는 Part로 배정한다. ___

※ 다음은 교회음악의 질적향상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해당난의 __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9. 효율적인 합창과 질적 향상을 위해 연습이외에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이 있
습니까?

- ① 있다 ___ ② 없다 ___

29. 성가대구성원으로서 적당하고 생각되는 나이는?

- ① 20~30대 _ ② 30~40대 _ ③ 40~50대 _ ④ 50대 이상 _

30. 그러면 현재 성가대원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 ① 20~30대 _ ② 30~40대 _ ③ 40~50대 _ ④ 50대 이상 _

31. 현재 성가대 구성원은 성가경력보다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_ ② 그런 것 같다 _ ③ 아닌 것 같다 _ ④ 상관없다 _

※ 다음은 보수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해당난의 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32. 성가대 지휘자의 보수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 ① 무료 봉사 _ ② 0~20만원 미만 _ ③ 20~30만원 미만 _
④ 30~40만원 _ ⑤ 40만원 이상 _

33. 현재 교회에서 받는 보수는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_ ② 만족스럽지 않다 _

34. 성가합창의 발전을 위해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_ ② 아니오 _

35. 현재 물질적인 지원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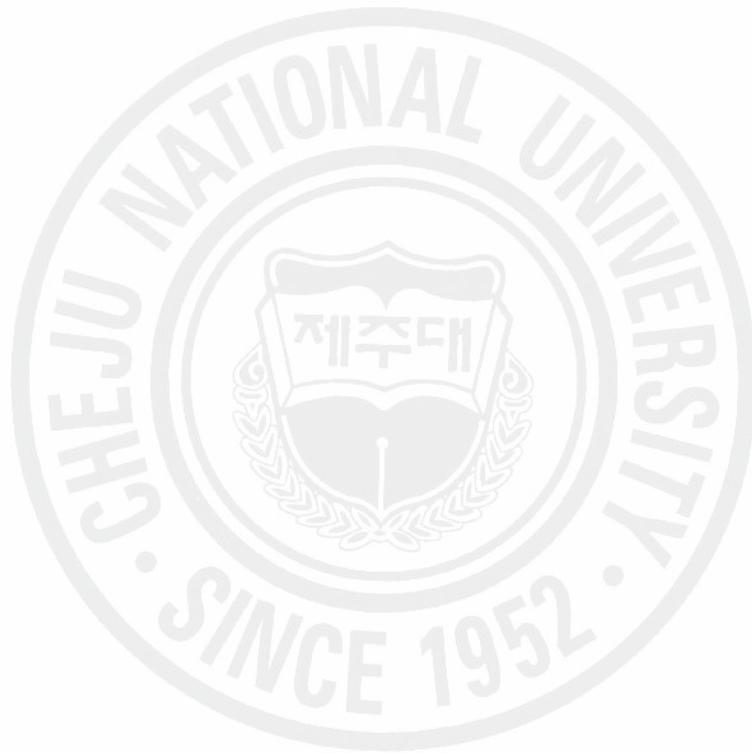
- ① 예 _ ② 아니오 _

36.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가장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① 대원들의 협조 부족 _ ② 교회 관리자의 협조 부족 _
③ 교회 관리자의 지나친 참견 _
④ 성도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 부족 _ ⑤ 기타 _

37. 지휘자로서 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바라는 사항을 꼭 적어주세요.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록2>

설문지 (성가대원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석사학위 청구논문(주제 : 한국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제주도내에 위치한 교회를 중심으로)을 쓰게 되어 바쁘신 가운데 죄송하오나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음악에 대한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생각을 들어보아 교회음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익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실태 그대로를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7년 10월
제주대학교일반대학원 음악과 전공 김수정

※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난의 __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남 __, 여 __)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__ ② 30대 __ ③ 40대 __ ④ 50대 이상 __
3. 귀하의 최종학력은? __
① 중졸 __ ② 고졸 __ ③ 초대졸(2년제) ④ 대졸이상 __
4. 성가대 경력은?
① 0 ~ 2년 미만 __ ② 2년 이상 ~ 4년 미만 __
③ 4년 이상 ~5년 미만 __ ④ 6년 이상 __
5.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까?
① 예 __ ② 아니오 __

12. 지금 하고 있는 성가연습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_ ② 충분하다 _
③ 다소 부족하다 _ ④ 매우 부족하다 _

13. 성가 연습 전 발성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_ ② 아니오 _

14. 성가 연습시 발성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_ ② 아니오 _

15. 성가대 Part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지휘자가 성가대원의 능력이나 음역에 맞게 Part를 정해준다. _
② 대원 자신이 원하는 Part를 정한다. _

16. 자신이 원하는 part를 정할 때의 기준은?(복수응답가능)

- ①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_ ② 멜로디가 쉬운 파트로 _
③ 악보를 읽을 줄 몰라서 _ ④ 악보를 잘 읽어서 _

※ 다음은 대원의 질적향상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해당난의 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7. 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 ① 있다 _ ② 없다 _

18. 있다면, 1년에 몇 번 참석하십니까?

- ① 0번 _ ② 1번 _ ③ 2번 _ ④ 3번 이상 _

19. 효율적인 합창과 질적 향상을 위해 연습이외에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_ ② 아니오 _

20.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_ ② 2회 _ ③ 3회 _ ④ 4회 이상 _

※ 다음은 보수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해당난의 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1. 효율적인 성가합창을 위해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는 꼭 음악전공자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_ ② 아니오 _

22. 위 문항에서 긍정적일 경우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무보수 _ ② 20만원 이하 _ ③ 40만원 이하 _ ④ 40만원 이상 _

23. 성가합창의 발전을 위해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_ ② 아니오 _

※ 다음은 기타사항들입니다.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해당난의 _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24. 성가대원으로서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 ① 음악이 좋아서(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_
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_
③ 성가대원끼리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_
④ 기타 _

25. 앞으로 성가대에서 계속 봉사를 하겠습니까?

- ① 예 _ ② 아니오 _

26. ②을 선택하시거나 주위에서 성가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음악적인 소질이 부족해서 _
- ② 시간이 없어서 _
- ③ 대원간의 친교가 부족해서 _
- ④ 지휘자가 못마땅해서 _ ⑤ 기타 _

27. 현재 귀하의 성가대의 음악적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_ ② 높다 _ ③ 보통이다 _
- ④ 조금 낮다 _ ⑤ 아주 낮다 _

28. 요즘 교회성가대의 연주되는 곡들이 장르가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다양하다 _ ② 다양한 편이다 _
- ③ 별로 그렇지 못하다 _ ④ 아주 그렇지 못하다 _

29. 요즘 성가대의 가장 필요한 개혁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_____

- ① 음악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_
- ② 신앙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_
- ③ 인간관계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_
- ④ 대원, 지휘자, 교회 지휘자들의 인식의 변화 _

30. 성가대의 수준을 더 향상시키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 및 연습시간 연장 _ ② 연습실 부족 문제 _
- ③ 리더의 교체 _ ④ 기타 _ ()

31. 성가대원으로서 바라는 사항을 꼭 적어주세요.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